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소아 병원 진료 받으세요”

나주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소아 야간진료기관 선정 전남도서 유일...주 20시간 진료 등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육성사업'에 나주 엔에이치미래 아동병원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소아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주 20시간 범위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소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안

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선정 기관에는 연간 1억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된다.

그동안 나주 지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시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취약지 소아 진료기관은 운영 시간과 인력 기준을 달빛어린이병원보다 완화 운영해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내 소아 야간진료 기반이 강화되며 향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시간은 월·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주 20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용근 나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NH미래아동병원 지정 운영 개시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서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관광시대, 광주관광공사가 앞장선다

전국관광공사재단협의회 대표자 회의 광주서 개최

광주관광공사(사장 정재영)는 최근 전국관광공사재단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초광역 관광 시대 상호 협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 관광 공사 및 재단 대표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사업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공동사업으로 OTA 플랫폼

활용 지역 관광상품 공동 홍보, 기념품 지원 이벤트 개최하는 등 실제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 협업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7년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충북문화재단 김경식 대표이사 가 선출됐으며, 이에 따라 광주관광공사에 이어 내년 협의회 공동사업은 충북문화재단에서 이끌어갈 계획이다.

광주관광공사 정재영 사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광주관광공사가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프로그램



광주관광공사는 최근 전국관광공사재단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초광역 관광 시대 상호 협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올해 전남관광특별특별 특별이 지역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제주에서 발족한 전국관광공사재단협의회는 14개 관광관련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에는 광주관광공사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식품안전관리자 집합교육

지역·축협 식품 취급 사업장 대상 진행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남 지역 농·축협 식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안전관리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나로 마트와 가공공장, 공판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식품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남 지역 농·축협 식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안전관리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사업장 식품안전 관리 요령 △원산지 표시 및 관리 기준 △위반 주요 사례 전파 및 대응 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축협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홍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구례군에서 열린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21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가랑을 겨뤘다. '희망이 꽃피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승패를 넘어 국민 화합과 참여, 그리고 장애인 체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대회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과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과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복귀금을 병행하며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전남도, 남도 맛·문화·자연 세계에 알렸다

여수 경도 '섬 달빛 미식회' 해금·기타 앙상블 등 공연

전남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에 초청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여수 경도에서 '섬 달빛 미식회'를 열어 전남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행사는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된 섬 달빛 문화학교 첫 프로그램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계자와 섬 주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알리고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는 노우라 합지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연합(UN) 기후 관련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관소리와 해금·기타 앙상블 공연으로 시작해 여수 해양 식재료로 활용한 프리미엄 코스요리로 이어졌다. 특히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2' 출연으로 알려진 김성운 셰프가 참여해 해초·조개·낙지 등 남도 식재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여수 경도에서 열린 섬 달빛 미식회 행사에서 노우라 합지자 UNFCCC 부사무총장 등 내빈들과 해초 비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해초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 섬 고유의 식문화와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전남의 미식·생태 자원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과 기후 이슈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국제기구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노우라 합지자 부사무총장은 “오늘 참가하여 해초·조개·낙지 등 남도 식재

물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이다”며 “지역 자원과 공동체가 결합한 전남의 사례는 글로벌 지속가능 관광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음식과 자연, 문화가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음악회, 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흥군, 취약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

장흥군은 최근 '2026년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통해 장평면 한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2026년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전국 단위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130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신협사회공헌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주한지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추진되며, 친환경 한지 벽지와 장판 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장에는 강진신협 및 강진신협 장흥금융센터 임원진과 전주

한지협동조합 관계자, 시공팀 등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문경환 강진신협 이사장은 “신협은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311@

게시판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 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비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로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인양육·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구당침·수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모집 ▲시니어물레니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3월 11일)

귀 48년생 일 경험 전 먼저 가족을 생각하라
60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번은 잃는다
72년생 자녀 생각 없이 하니 빨리 바꾸라
84년생 금지옥연이 상실될 수도 있다
96년생 데이트 예상 틀러지니 짜증 가중

토끼 51년생 51년생 내 것 주고 뺏 맞는다
63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없다
75년생 공연한 일로 크게 다룰 수 있다
87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으니
99년생 구상 좋으니 계획 세우기 좋은 날

말 54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겨라
66년생 직업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음이라
78년생 반복 될 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90년생 모든일에 만족스런 결과가 나타나다

돼지 57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69년생 영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81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히 청산하라
93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

소 49년생 귀하의 마음부터 우선 잡아라
61년생 몸과 마음만 분주하고 결과 없는 날
73년생 움직일 때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라
85년생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
97년생 주관안이 따르면 손해수 있다

황소 52년생 원칙대로 해야만 후회기 없다
64년생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은 피하라
76년생 너무 앞서지 말라 명맥만 유지되리니
88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 아쉬움 남는다

양 55년생 생각만 하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다
67년생 사교성이 많으니 주위사람과 즐겁다
79년생 희망찬 전진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천성본인인 인연 맺는 날이니

개 58년생 신규 사업 시작 하거나 깊이 개입 말라
70년생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다
82년생 친구의 괴움을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
94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둘 다 내 것이 아니니 빨리 건너주라
62년생 실패할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74년생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
86년생 거러치는 귀하보다 한 수 위이다
98년생 농치지 말고 세심하게 챙길 일이다

범 53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장 찍으라
65년생 될 것이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하라
77년생 활기차고 밝은 날이 될 것
89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누리라도 하라

원숭이 56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68년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80년생 계속될 것이라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92년생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라

돼지 59년생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횡재수 보인다
71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95년생 주인공이 될 것이다